

제 181 호

부할 제 4 주일

1976. 5. 9.

#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세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3.1 사건 공판 방청기

정 승 현 신 부

5월 4일 아침 9시. 방청권을 받기 위해 명동 주교관으로 가니 문정현 신부님의 부모님이 먼저 와 계시다.

문신부님을 위한 방청권은 모두 다섯장— 문신부님의 아버지, 동생 문규현 신부님, 부주교님, 유장훈 신부님 나— 이렇게 다섯정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부주교님이 입원하셔서 한장은 쓸 수 없게 되었다.

개신교측에서 방청이 제한된 재판관을 거부한다는 말이 있어 천주교 측에서도 행동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 때문에 추기경님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일단 법원에 가기로 했다. 법원으로 통하는 길은 모두 차단되어 있었고 방청권이 있는 사람들만 통과시켰다. 삼엄한 분위기를 걸어가지니 꼭 죄를 지은 사람 같다. 힘겨운 올라오는 교구의 많은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해성학교 교장 선생님과 조성호 평협회장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제지를 당했다.

법정에는 이미 피고인들이 모두 와 있었다. 문신부님은 들뜬채 원편에서 두번째에 흰 헌복을 입고 앉아계시는데 그 까만 얼굴이 많이 하얘지시는 했어도 걱정할 것보다는 건강하신 외모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교도관이 양편에 호위하여 앉아있다. 방청석에는 추기경님과 지주교님을 비롯하여 수명의 신부와 정치인들, 가족들과 관계 인사들이 앉아있다. 취재기자들까지 합하여 모두 60명 정도이다.

문신부님이 잠깐 뒤를 돌아보다 눈이 미추치자 손을 들어 웃어보이신다. 3명의 판사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자 재판이 시작되었다. 10시 10분쯤이었다.

김대중씨의 인정신문으로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두번째로 나온 문동환 목사가 가족들도 보이지 않는 비공개재판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자 변호인들의 발언과 재판장의 답변이 있었고 이 문제를 위해 변호인단의 요구로 10분간 휴정되었다.

10여분의 휴정 동안 피고인들과 방청인들이 인사말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 문신부님도 아버님과 동생 신부와 인사를 나누었다. 동생이 신부가 되는 경사에 참석치 못하고 전날 서품된 동생을 바라보는 신부님의 심경을 헤아리니 형용키 어려운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교구에서 성지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많이 올라오셨으나 이곳에 들어오지 못했음을 알려드리고 용기를 내시도록 부탁드렸다.

변호인들이 들어오자 재판은 속개되었으나 오늘의 방청권 발행은 법에도 없는 일이며, 법원으로 통하는 길들이 모두 차단되고 가족들까지도 방청하지 못하는 사실과 수사기관의 감시, 피고인들이 가족 없는 재판관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이 재판이 [자유롭고 공개된

재판이 못되므로 판사가 재판을 계속한다면 변호인들이 모두 퇴장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다시 휴정되었다. 이번 휴정 시간에도 피고인들과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다. 동생 신부님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면서 건강에 유의하시라고 부탁하면서 (문신부님은 발이 원케되지 못하셨다)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당부하셨다. 아버님도 저서 신부님을 바라보고 계셨다. 미소를 보이시며 태연해하시는 신부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보내시며 계속 일하라고 무언중에 가르쳐주셨다. 기회가 있는데도 분위기에 눌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신부님만 바라보았다. 10여분 후에 재판을 속개되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뜻을 받아들여 재판을 5월 15일 10시로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1시간만인 11시 10분에 폐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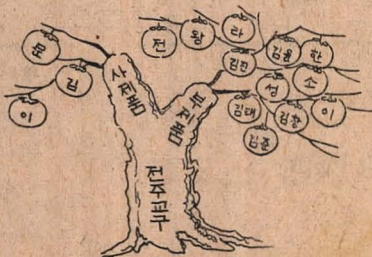
피고인들을 법무부 호송차로 인도하는 동안 다시 비공식으로 피고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문신부님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일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정막으로 치창을 가리운 호송차에 오르셨다. 법정 밖에도 가족들이 들어와 있었으나 신부님의 어머니께서도 용케 그곳까지 들어오셨으나 신부님을 뵙지는 못하고 차창이 가리워져 호송차만 볼 수 밖에 없었다. 법원 후문 밖에도 응감한 시민들이 경찰들의 제지를 뚫고 들어와 박수를 보내며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 승리하리라"하는 절기를 목청껏 부르고 있었다. 그 소리는 아까 법정안에 까지 들려왔었다. 호송차는 만세를 박수소리를 받으며 후문으로 해서 서대문 형무소로 돌아갔다. 그때까지 연도에서 경찰과 기원원의 제지를 받고 있던 시민들도 만세와 박수를 보냈다.

재판이 끝나자 모두 명동성당으로 가서 신부님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분들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합하여 성부께 봉헌하면서 계속 일할 것을 다짐하였다.

주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선의가 이해될 것이며,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교구 정의 평화위원)

## 숲 정 이 산책



주님 주님 열렸네!

# 성소주일을 위한 교황님의 말씀

(1976. 5. 9 성소주일)

교황 바오로 6세

교회의 모든 형제와 자녀 여러분!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애정과 신뢰로 하나가 된 마음에서 다시 한번 한 말씀 드리코자 합니다.

“내게는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양들을 데려다가 돌보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요한 10 : 16)

나도 성 바오로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아무도 말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들을 것입니까? (참조 로마 0 : 14-15) 교회의 신기케 놀라운 큰을 이 세상 곳곳에 그리고 모든 세대에 알리기 위해 이를 읽고 전하며 널리 전파하는 남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소와 복음 전파와의 밀접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듯이 당신 공 생활을 통해 당신 나라와 백성에게 일생을 통해 당신의 말을 들려 줌으로써 자신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범을 주셨습니다. 즉 “그후 예수께서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루가 8 : 1)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참조 복음선 포를 위한 사도적 권고서 7호)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말씀이 우리와 같이 항상 머물기를 원하시면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마태오 24 : 35)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에 의해서 계속 그의 말씀이 전파 되기를 원하시면서 “당신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오”(마르코 16 : 15)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형제들이며 자녀들인 여러분!

이제 다 함께 반성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회는 유일한 사명이 있지만 역할적무, 봉사등은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소에도 여러가지 임니다.

다양한 부르심 안에서 특히 사제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제일 뚜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놀랍고 끊임줄 모르는 일에 바로 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신품성사의 힘으로…… 그들은 복음을 설교하도록 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증제자이신 그리스도의 임무를 나누어 수행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데에 수고하며 주의 법을 묵상하며 읽은것을 믿고, 믿은 것을 가르치며, 가르친 것을 실천합니다”(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28). 주교직의 지혜로운 협력자들로서 설교를 통하여 신앙을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을 지도하며 그들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소성의 다양성 안에는 수도사원으로 봉헌된 사람들의 자리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봉헌된다는 것! 이는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자신의 일생을 봉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개 전교 제일선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애덕의 일을 통해서 또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조 복음선포를 위한 사도적 권고서 69호) 이는 남녀의 분별없이 주어진 가장 숭고한 임무이며 관대한 열의와 행동력이 풍부한 봉헌된 수도자들에게 특히 감수성과 창조력이 풍부한 수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양한 성소안에 평신도들의 역할을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주께서 그들에게 주기를 즐기시는 은총과 특은에 따라 교회 공동체안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그들의 목자를 돕기로” 불려졌습니다. (복음화를 위한 사도적 권고서 73호) 또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생활을 하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행적으로 전파하는 성직자, 부제, 수도자, 평신도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많은 길이 우리 앞에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이길은 우리가 따르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이는 밟지 않은 길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자신만의 자유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밝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성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다”. (사도행전 1 : 14)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구원 받을 사람을 날마다 불러 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고” 이들은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다.”(사도행전 2 : 46-47)는 초대교회 아름다운 사실이 이 20세기 말엽에 다시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나의 초대와 희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 확증으로 나의 사도적 축복을 보내는 바입니다  
바티칸에서 1976. 2. 3.

\* 교우들의 선물 센타 \*

전자, 새살림, 기념품, 완구

## 아세아 종합 스토아



강영욱 (로모알드)

남문 신탁은행 앞

전화 ㉠4007, ㉠7007

## ◎보세공 모집◎(여자)

1. 자격 : 17세 이상

2. 모집인원 : 〇 〇명

※수시 모집함

3. 연락처 : 전화 ㉠8466

전주시 전동성당 골목

김영환 (아오스당)

\* 돈 보스코의 제자들 \*

## Salesian 동문회

(在全北)

일시 : 1976년 5월 22일 오후 5시

장소 : 전주 덕진천주교회 (전북대앞)

회비 : 1,000원

연락처 : 아세아 약국 (고속버스 터미널 옆)

전화 ㉠2423

(환) 교황대사 전주교구 방문 (영)

WELCOME  
HIS EXCELLENCY LUIGI DOSSENA



주한 교황대사 루이지도세나 대주교  
(교회법 박사, 신학 석사)

1925. 5. 28 이태리 크레마에서 출생  
1955. 바티칸 외교관  
혼듀라스, 도미니크 공화국, 미국군부  
1973. 2. 27 한국 대사로 임명됨  
1973. 3. 25 대주교로 성성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우 리 의 태 도

3. 1절 기도회 사건으로 입건된 형제들의 공판에 즈음하여 우리는 이땅에 신앙을 기묘히 전해주시고 선조들의 귀한 피로써 그 신앙을 가꾸어 주신 하느님께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태도를 그리스도인들과 국민 앞에 천명하는 바이다.

1. 이미 한국교회 주교단은 3월 15일 성명을 통하여 3월 1일 기도회는 현 정권의 전복을 음모한 사건이 아니며 그리스도교 신앙과 애국심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주교단의 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입건되어 재판받는 형제들의 신앙양심과 애국충정이 재판과정에서 자유로운 진술, 충분한 변론,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됨으로써 그분들의 선의가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2. 우리는 공산주의가 이 땅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어느 한 사람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어떠한 술책이나 책동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6. 25와 같은 가장 불행한 내란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모든이가 인권을 유린 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기도하며 일할 것을 다짐한다.

3. 우리는 교회가 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가난한 이들과 병든이들,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이들의 편에 서서 기도하며 일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책신을 위해 희신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이웃에게 돌아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1976년 5월 3일 전주교구 사제단 일동

요심이 (145)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입 금 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 원 준 (야고버)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 느 의 상 실

최 춘 자 (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 - 6 2 1 9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 심 당 한 약 방

이 상 범 (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⑤ 4 5 4 4

블러 주시면

언제라도

연 탄

어 림

신속, 정확, 친절  
배달하겠습니다

이 영 희 (다두)  
◎전주시 전통 성당 골목  
(전화) ⑤ 8 4 6 6

◎교우 여러분께 특별 봉사함  
새롭고 저렴한 연탄보일러 온돌 안내  
한국 온수산업사  
전남북 총판, 기술보급소

전주지점 전동지점 ②2143  
다가 " ④342  
금암 " ⑤5614  
이리시 인화동2가65-16 (전화 4940)  
한 등 압 (모이세)  
※각 지방 대리점 구할

꽃상여,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 씨 관 집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⑤ 6691 (교환85번)  
自宅 ⑤ 5418

★ 교형 여러분의 집 ★

현 대 사 진 관

김 낙 준 (요한)

전화 ⑤ 5 2 8 9  
주소; 교사동 2가 역전오거리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인사 이동<76. 4. 30일자> (괄호안은 전임지)  
성모 병원장:김영일(서학동), 서학동 주임:오현택(고창), 광주 대진학교 교수:박진량(창인동), 불탄서 유학:이병호(신학교), 창인동 주임:김용태(무주), 무주주임:김동준(중앙 보좌), 고창주임:강인찬(창인동 보좌), 주교좌 수석보좌:한봉섭(전동 보좌), 창인동 보좌:이종원(새신부), 전동 보좌:문규현(새신부), 주교좌 제2보좌:김병환(새신부).
2. 문신부님 위한 헌금 누계 593,006원 감사합니다.  
월명동 자모회 (10,000), 매야 분당 (5,850), 진안 부인회 (13,700), 덕진 분당 (10,000), 복자 성당 (9,460)  
※ 관청에 나오신 문신부님 모습은 매우 건강하시답니다. 더욱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서해방송<생활종교시간>: 다음 주일 오전 7시 40~50분, 주제:조건없는 사랑, 연사:엄기봉신부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③3874 보좌 신부 김동준  
사도 회장 이상용

1. 수석 보좌 신부 한봉섭(시문), 제 2 보좌 신부 김병환(요한)
2. 오늘 10시 교황대사 환영미사가 있습니다.
3. 푸리아 월례회:오늘 오후 2시
4. 제6차 마리아 합창단 총회:13일 오전 10시 합동배차장에 집합바랍니다.
5. 성모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6.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동준(야고버) 보좌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7. 1년간 제대 초를 회사해 오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익명
8. 문정현 신부님을 위한 헌금:2,000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신부 공아영  
사도 회장 조해철

1. 신용협동조합 월례회:오늘 10시 미사후
2. 애령회 간부 월례회:다음주일
3. 병자성사 및 영성제:12일(수)◎준비하시기바랍니다
4. 본당 신부님 가정방문:13일(목) 중노송동 2가  
◎구역장, 반장님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5. 성당의자 헌금:익명(1,000원), 누계 1,647,830원
6. 재속형제회 청년회 부활전야 초 판매대금 2,500원을 문신부님을 위한 헌금으로 주셨습니다.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어린이 성세식:10일(월) 오전 10시
2. 학생회 월례회:공식미사 후
3. 춘계 야외미사:일시-16일 오전 9시 30분 출발 미사시간-10시 30분, 장소-전당리 공소 전동 저수지  
※교통비는 개인 부담함
4. 신임 성가대장 임명:박안나(정자) ◎축하합니다.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5. 이도미(종원)신부 사제서품 축하예물에 협조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사정에 의하여 6월 13일(일)로 연기
7. 애령회 성미 헌금 목표액 100,000원 많은 협조 바랍니다
8. 35사단 순정미(50부) 보내주실 독지가를 찾습니다. 50부 대금 1개월(1,200), 1년(3,700원)이 옵니다.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로

1. 반회합:11일(화) 제9반(조마리아씨택), 완산동 12일(수) 제10반(김가밀라씨택), 화산동 13일(목) 제11반(허테레사씨택), 태평동 2가
2. 성우회:16일 공식미사후로 연기  
◎빠진것은 참석바랍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박장춘

1. 신부님의 은혜와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후임 신부님을 다같이 환영합니다.
3. 견진 희망하시는 분 5월 23일 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봉섭  
사도 회장 양윤모

1. 자모회:10시 미사후
2. 장우회:저녁미사후
3. 성가정회:월요일 오후 2시
4. 봉사분과 위원회:토요일 저녁미사후
5. 성경연구 모임:월, 화. 수요일 저녁 8시미사후, 대상:25~50세 미만의 남자
6. 동대할 교리경시:23일 주일 밤
7. 성가경연:30일 주일 밤
8. 어린이 운동회:16일 오전 9시 30분, (성삼운동장)
9. 신용협동조합 월례회:14일(금) 저녁미사후

\* 각 분당의 급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수신태인읍 창제류인읍	사도회	5,000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등	주일학교 춘계소풍, 부인회	55,875원
		L. M평화의모후 푸리아 옥의행사	24,000원			대의원 월례회	51,895원
		합동 혼배미사, 신우회	23,655원			중·고등학생 셀 조직	8,995원
제 2 지구	대 돌출명동월	입피공소 오늘 오후3시 미사	6,515원	제 4 지구	중 앙노송동진자동 서학동전	9일 교황대사 환영미사	105,635원
		신용 협동조합 월례회	53,000원			신용 협동조합 월례회	35,480원
		바다의 별 푸리아회 학생회, 아동교리반 소풍	30,375원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17,400원
제 3 지구	고 금여삼	주일 학교 대전 신학대학 방문	18,230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임	성우회 16일로 연기	22,000원
		사도회 임원 개편	3,950원			신부님의 은혜와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340원
		다같이 신학생후원회에 가입합니다	13,665원			자모회, 장우회	91,250원
		회장단 월례회	6,770원			푸리아 회합, 청년회 새부서 창설	5,220원
						사도회 월례회, 청년회 월례회	3,715원
						교무금울완납하여분당운영도움서다	8,515원
						남원, 순창학생 춘기 체육대회	1,3000원
						사도회 월례회	5,221원